



▲ 회화: 《연꽃이 피다》, 작가: 밍쯔(明子·중국)

봉쇄들과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

洪天福賜

明慧期刊 제15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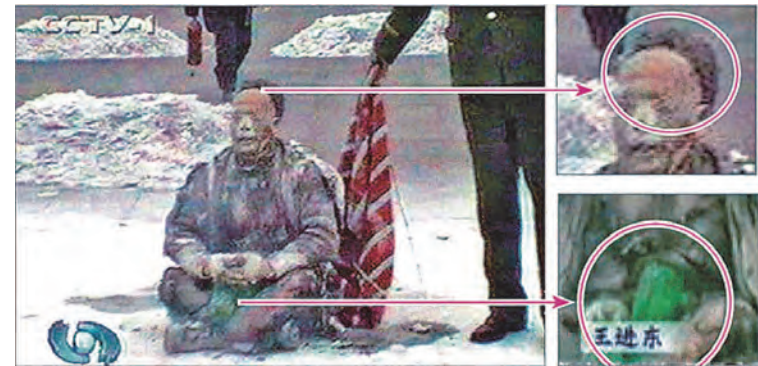
명혜 정기간행물 | MINGHUI.ORG | 격월간



▲ 2026년 7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미국 서부 최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목차 CONTENTS

- 권두일문 1 달의 궁전은 어디에 있는가?
- 독후감 2 한국 인터넷 유명 인사,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
- 길성고조 (吉星高照) 4 온 가족, 코로나 위기 무사히 넘겨
7 여동생 부부, 생사의 위기를 넘기다
-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8 위암 환자, 다시 찾은 삶
11 그녀 머리 위의 검은 기운이 사라지다
- 세상을 이롭게 14 인생의 풍파를 지나 행복과 평온을 맞이하다
17 파룬궁,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다
- 아는 것이 복 18 어린 소녀의 호소, NBA 스타의 마음을 울리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21 나의 사업 철학: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 평안을 얻는 길 24 한 중국 사법 관리의 진솔한 속마음
26 4억 6천여 만 명, 이미 ‘삼퇴’로 평안을 지키다
- 항간여론 28 역년의 기이한 돌에 깃든 천기
29 상식으로 꿰뚫어 본 텐안먼 ‘가짜 분신 사건’



◀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처럼 멀쩡하다.

상식으로 꿰뚫어 본 텐안먼 ‘가짜 분신 사건’

2001년 1월 23일(음력 선달그믐날), 텐안먼 광장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중공은 이를 파룬궁수련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공 CCTV가 방영한 ‘분신자살’ 영상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고, 많은 사람은 이를 통해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

섭씨 500도 고온에
“끄떡없이” 앉아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간다. 왕진동(王进东)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떤 시청자는 말했다. “요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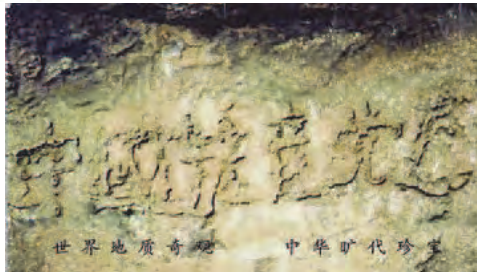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팔에 튀어도 팔쩍 뛰는데, 분신이 진짜라면, 왕진동은 텐안먼 광장에서 팔쩍팔쩍 뛰고 난리였을 거다.” 견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휘발유가 담긴
스프라이트 병은 타지 않았다

중공 CCTV가 방영한 ‘텐안먼 분신자살’ 영상을 보면,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처럼 멀쩡하고,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실험해봤다.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 만에 병이 말랑해지고, 7초엔 모양이 변하고, 10초면 그냥 쪼그라든 덩어리가 된다. 왕진동 다리 사이의 병은 무슨 특수 소재라도 되는 건가?

(글/ 루진, 如君) 福



◀ 구이저우성 핑탕현의
억년 된 장자석에는 자연
적으로 형성된, 간체자와
번체자가 섞인 여섯 글자
‘중공공산당 망’이 있다.
이는 하늘이 세상 사람들
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억년의 기이한 돌에 깃든 천기

구이저우성 핑탕현의 ‘장자석(藏字石)’에는 ‘中國共產黨亡(중국공산당 망)’이라는 여섯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중국 국내의 여러 최고 권위 지질학 전문가들이 조사에서 약 170톤에 달하는 이 거석은 약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됐으며, 약 500년 전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돌에 나타난 글자에는 인위적으로 새기거나 조각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자연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서는 마지막 글자인 ‘亡(망)’을 숨겼다. 독자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부탁해 볼 수 있다.

여섯 글자 가운데 ‘國’과 ‘產’은 정체자이고, 나머지 네 글자는 간체자로, 이어서 읽으면 ‘중공당망(中共黨亡)’이

된다. 간체자는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야 생겨났는데, 500년 전에 어떻게 간체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고인은 이를 두고 하늘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 ‘토지개혁’, ‘대약진’, ‘반우파’, ‘문화대혁명’, ‘6·4’, ‘파룬궁 박해’ 등 각종 정치운동으로 인해 8천만 명의 중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이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중국인의 절반이 중공의 박해를 받았다. 특히 최근 27년 동안 중공은 마음을 닫고 선을 지향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해 왔으며, 심지어 폭리를 위해 이들의 장기를 대규모로 강제 적출하기까지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전례가 없었던 죄악’을 저질러 천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선약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며, ‘장자석’은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천기(天机)를 드러내고 있다. 

달의 궁전은 어디에 있는가?

‘항아가 달로 날아갔다(嫦娥奔月)’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한 뒤 본 것은 황량한 운석 충돌구와 잿빛 흙뿐이었다. 그렇다면 월궁(月宮)은 단지 신화와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

만약 항아가 고증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면, ‘당 현종의 월궁 유람’ 이야기는 옛사람들의 상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당일사(唐逸史)》와 《태평광기(太平廣記)》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개원(開元) 초기 어느 추석날 밤, 당 현종은 도가(道家) 고인의 도술로 월궁을 유람하고, 선녀들이 신선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감상했다고 한다. 음률에 정통했던 현종은 궁으로 돌아온 뒤 기억을 되살려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을 지었다고 전해졌다.

중국 전통문화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다. ‘무릉도원(武陵桃源)’, ‘동천복지(洞天福地)’, ‘호중천지(壺中天地)’ 등이 대표적인 예로, 모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공

간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옛사람들이 말한 ‘월궁’은 달 표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달의 위치에 다른 시간과 공간 질서가 존재하는 다른 ‘달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항아는 서왕모(西王母)가 준 선약을 먹은 뒤 인간 세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몸이 가벼워졌고, 하늘로 날아올라 그 ‘달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비행사가 월궁을 보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달 표면을 탐사할 수는 있지만, 현재 과학의 한계로 우리 이 물질 공간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추절을 맞아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생각은 아득한 곳으로 날아가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은 광활한 우주 중의 무수한 공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월궁은 과연 존재할까?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언젠가 우주의 신비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늘이 내린 큰 복’ 편집부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한국 인터넷 유명 인사,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

글/ 이윤정(李潤靜, 한국)



▲ 한국의 인터넷 유명 인사 Dayner Kim

인터넷 유명 인사이자 기독교 장로인 데이너 김(Dayner Kim)은 에포크타임스에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为什么会有人类)》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생에 대한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의 유튜브 시사 채널은 28만 명

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모두 욕심 때문이라며, “종교적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글에서는 우주의 '성(成)·주(住)·괴(坏)·멸(灭)'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삼퇴’를 해야 짐승 기호를 없앨 수 있다
중공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주먹을 들고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다른 공간에서 공산 사령(邪灵)에 의해 ‘짐승 기호’가 찍히게 된다(설명도 참조.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은 사령의 통제에 속하게 된다.

신불(神佛)은 자비로우시기에 사악한 당의 최후가 닥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 탈당 사이트에서 진심으로 ‘삼퇴(三退-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성명하는 것은 신불에게 공산 사령에서 벗어나 그 조직의 일원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신불이 다른 공간에서 그 사람의

‘짐승 기호’를 지워준다. 신불이 사악한 당의 죄악을 청산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연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삼퇴’는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이 초과로 자동 탈퇴된 것은
‘삼퇴’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불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진심으로 탈퇴한다면 실명, 가명, 소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나이 초과로 자동 탈퇴되거나 중공 조직을 통해 탈퇴한 것은 진정한 ‘삼퇴’로 간주되지 않으며, ‘짐승 기호’를 지울 수 없다.

“삼퇴” 방법

- ① 돌과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탈당 사이트에 접속: santui.tuidang.org
- ② 삼퇴 전용 이메일로 전자우편을 보낸다: santui@tuidang.org
- ③ 북미 무료 서비스 전화로 전화: 1-702-873-1734
- ④ 현지 파룬궁수련자를 찾거나, 해외 친지·지인에게 부탁해 ‘삼퇴’.
- ⑤ 당장 ‘삼퇴’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삼퇴 선언을 공공장소에 게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글로벌 탈당 사이트로 전달해야 한다. 福





4억 6천여 만 명, 이미 ‘삼퇴’로 평안을 지키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해외 탈당 사이트를 통해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선언한 인원은 이미 4억 65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评共产党)’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각성 운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중화의 아들딸이 될 지언정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은 되지 않겠다”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인생의 일체가, 응당 얻어야 할 것과 얻지 못할 것이, 모두 이전 생(生)·이전 세(世)에 잘하고 못한 것이 조성한 다음 생·다음 세의 인과로서, 이전 세에 쌓은 복덕(福德)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번 세 또는 다음 세의 복분(福分)이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

이에 김 씨는 깊이 공감했다. 그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읽은 뒤 “지금의 현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선과 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씨는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차이에 불만을 느끼고, 갈등도 생겨납니다. 불만이 없다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가정과 이웃, 나라도 더 좋아지며 세상 역시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생활의 빈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선함을 유지하고, 하늘을 공경하며, 신을 공경하고, 남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 그러면 복덕

이 쌓이고 내세에 복을 받는다.”

김 씨는 “리 선생님의 글을 통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 자신도 행복해짐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기독교 장로인 저 역시 감동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감동한다면, 한순간에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파룬궁의 주요 서적인 《전법륜(转法轮)》도 읽었다. (이 책은 현재 50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출판·보급되었다) 그는 “저는 파룬궁이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신앙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과 연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함께 수련하기에도 적합합니다”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홍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룬궁이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가치관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파룬궁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이 그림은 명혜망(明慧網)에 실린 한 독자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2020년 2월 2일, 해당 사연을 투고한 작성자는 우한의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아내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다가 불행히도 감염됐으며, 증상은 우한 폐렴과 완전히 일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에는 병상이 없어 확진 판정을 해주지 않았고,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그는 친구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法輪大法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외우라고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외우고 온 가족이 함께 외우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뒤인 2월 4일, 작성자가 다시 친구에게 연락하자 친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온몸이 가벼워졌어”라고 했다. 이는 우한 봉쇄 기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다.

온 가족, 코로나 위기 무사히 넘겨

글/ 무란(沐兰, 중국)

2020년 초, 윈메이(芸梅·가명)는 가족 3대가 함께 설을 보내려고 남편의 고향인 우한을 찾았다. 당시 코로나19는 이

미 확산하고 있었지만, 당국이 전염병 정보를 은폐하여 시민들은 평소처럼 함께 식사하고 친지들을 방문했다. 1월 23일, 설 전날 역병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우한시는 전면 봉쇄됐다.

온 가족이 우한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

어느 날, 윈메이의 손녀에게 발열 등

진상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러다 2024년, 과거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동료들이 잇따라 여러 형태로 응보를 받는 것을 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마음속으로 치열하게 갈등한 끝에, 체제 내에서의 일을 조기에 그만두기로 했고 핑계를 대어 그곳을 떠났다.

체제를 떠난 후, 나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정책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제야 이른바 ‘반당·반사회주의’라고 불리던 수련자들이 중공이 선전한 것과 달리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나는 과거 내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지금 나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하고 좋아 보이는’ 직장을 잃었지만, 그 대신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이런 평온함과 편안함은 체제 안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는 파룬궁을 지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릴 것이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체제

중공 체제 내부는 인간성을 말살하

는 곳이다. 사람들은 처음 체제내에 들어갈 때는 열정과 포부로 가득하지만, 오랜 기간 세뇌와 통제를 겪으면서 점차 당성이 인간성을 대신하게 된다.

이른바 업무라는 것도 결국 사악한 당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며, 사악한 당에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체제 내 관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사악한 당의 체제가 하루빨리 해체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상이 내가 체제를 떠나고 사악한 당에서 탈퇴한 후 갖게 된 인식이다. 내 주변에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 역시 중공 체제를 떠난 후야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이 하루빨리 사악한 당에서 탈퇴하고 전통으로 돌아가 건강한 몸과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 파룬궁 창시자 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 중국 사법 관리의 진솔한 속마음

중공 사법 계통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한 관리의 과거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적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는 진상을 알게 된 후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반성하며 각성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가 1인칭으로 털어놓은 마음속 이야기다.

나는 중국의 체제 내 사법 계통에서 30여 년간 일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무척 행복하고 즐거웠다. 당시에는 충기를 휴대했고, 어떤 일이든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다. 상부의 간섭도 거의 없었고, 업무도 매우 수월했다.

그러나 1999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우리 업무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압박도 점점 커졌다. 각급 지도부의 개입도 갈수록 많아졌으며, 많은 사건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기에 ‘일을 할 때는 양심을 지켜야 함’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



다. 줄곧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료들의 눈에는 별난 사람으로 되었다. 점차 상사들도 나를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본의 아니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들이 좋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재판에 참여했다.

양심은 줄곧 가책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 고통이 매우 컸지만, 수없이 많은 세뇌를 겪으면서 점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심도 조금씩 사라졌고, 양심을 잃어버리는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갔다. 당시에는 살아남으려면 양심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비난과 질책을 감수해야 했다.

동료가 응보 당하는 것을 보고 깨닫다

파룬궁수련자가 몇 차례 나에게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온 가족이 감염된 듯한 증상을 보였다. 당시 병원은 감염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들은 교차 감염을 우려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설 명절은 본래 일 년 중 가장 경사스럽고 즐거운 때지만, 당시 우한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원메이는 80대인 어머니에게 전화로 온 가족의 상황을 전했다. 다급해진 어머니는 파룬궁을 떠올렸고, 딸에게 온 가족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며 대법 사부님께 구해 달라고 간청하라고 했다.

원메이의 어머니는 파룬궁수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웃을 통해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며, 질병 치유와 건강 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공으로부터 비방과 박해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인은 선량함의 편에 서서 이웃의 도움으로 ‘삼퇴(三退·과거 가입했던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경건하게 외웠다.

노인은 고혈압으로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였는데, 어느 날 혈압을 재보니 정상 수치보다도 낮게 나왔다. 노인은 ‘파룬따파하오’를 외어 복을 받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깨달았다. 그 후 노인은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자 대법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원메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온 가족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계속 외었다. 다음 날 아침, 손녀는 온몸에 땀을 흘린 뒤 열이 내렸고 다른 가족들도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를 통해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직접 체험했다.

우한 봉쇄 기간, 집에는 쌀과 간장밖에 없었고 다른 먹을거리는 거의 없었다. 가족들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매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고, 그렇게 코로나19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왜 대법이 좋다고 염하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신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먼저 중국 전통 의학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현원황제(軒轅黃帝)가 태의(太醫) 기백(岐伯·중국 전통의학의 시조로 불림)에게 물었다. “오역(五疫)이 닥치면 어른·아이를 막론하고 쉽게 감염되고 증상도 비슷하며,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오역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기백은 이렇게 답했다. “서로 전염되지 않는 것은 몸 안에 정기(正氣)가 존재해 사기(邪氣)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의학에서 말하는 ‘정기’는 인체 내부의 긍정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사기’는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 그리고 역러지기(疫癘之氣) 등 인체의 건강에 해로운 여러

요인을 가리킨다. 정기가 충분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백은 “정기가 몸 안에 있으면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正氣存內, 邪不可干)”고 말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에서 유익한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룬파는 불법(佛法)이며, ‘진선인’은 우주의 가장 높은 특성이다. “파룬파 파하오, 썬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면 사람의 정기가 강화돼 바이러스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셀 수 없이 전해지고 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중공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된다.

첫째, 중국의 현행 헌법은 시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안부의 [2000] 39호 및 [2005] 39호 문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4종의 사교(邪教) 목록을 발표했는데, 파룬궁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가 공포한 제50호 명령을 통해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다.

상대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나는 매번 물건을 옮기고 차에 싣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그가 떠난 뒤에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울었다. 나는 “남편에게 ‘파룬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하세요. 가능한 한 다리를 절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외우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해볼게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요.”라고 했다.

나는 또 말했다. “전에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은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외상으로 드릴 테니, 돈이 생기면 먼저 치료비로 쓰세요.” 그녀는 감동하며 말했다. “남편이 당신처럼 좋은 분과 인연을 맺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나는 계속 그에게 물건을 보내주었고, 주문하지 않은 신상품도 함께 보내주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후 만날 때마다 그는 나를 매우 공손하게 대했다. 당시 일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 가게는 진작 문을 닫았을 겁니다.”라고 했다.

나는 점포 하나를 임대하는데, 남들

은 5만 5천 위안이지만 나는 5만 위안만 받았다. 어느 해 여름, 그가 임차한 점포 앞에서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20일이면 끝난다고 했지만 석 달이나 지연됐다. 그가 공사 책임자를 찾아가자 책임자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큼만 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근 점포 사장들과 함께 정부에 찾아가지만, 경찰이 여러 명 와서는 “가지 않으면 구류하겠다.”라고 했다. 임차인은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2천 위안을 보상해 줄 테니, 임대료를 낼 때 그만큼 빼고 주세요.” 그는 감동하며 말했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길러내셨다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실 대법을 수련하기 전의 나는 무척 인색했다. 2천 위안은 커녕 남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했다. 대법은 나를 완전히 새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난 일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눈앞에 떠오른다. 그 모든 일은 수련 후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빛나는 순간들이며, 대법 속에서 영혼이 승화한 무지개와도 같다. 또한 사부님과 진선인 대법의 위덕을 증명하는 일들이다. 



니다. 제 행동을 지켜보세요.” 그 후로 그가 다시 가짜 상품을 판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예전에는 나를 만나기 꺼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주 내 가게에 찾아온다. 그의 처제가 결혼할 때는 나를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다.

그의 부모와 네 명의 동서, 처제 등 친족들에게 나는 대법의 진상을 알렸고, 모두 ‘삼퇴(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하도록 도왔다.

대법의 법리에서 나는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사람은 총명하다고 해서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며, 어리석다고 해서 덜 얻는 것도 아니다. 신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덕과 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다.

그때부터 나는 동종업계 사람들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했으며,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했다. 예전에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던 영업 비밀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기꺼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장사하니 손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동종업계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고, 어떤 사장들은 내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득실에 연연하지 않다

어떤 고객이 나에게 2만 위안이 넘는 돈을 빚졌는데 가게를 운영할 때는 온

갖 좋은 말을 다 하더니, 망하고 나서는 만날 수조차 없었다. 아내는 “절반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정말 양심도 없어.”라고 했다. 나는 아내를 달래며 “어쩌면 어느 생애선가 우리가 그에게 빚을 졌을지도 모르니, 이번에 빚을 갚은 셈 치자.”라고 했다.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타이르지 않았으면 속앓이하다 병이 났을 거야.”라고 했다.

대법을 수련하기 전의 나는 아내보다도 못했다. 우리와 거래하는 소매점이 백여 곳 있었는데, 어떤 고객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빚을 떼먹었고, 어떤 고객은 오래된 물건으로 빚을 대신했으며, 어떤 고객은 막무가내로 돈을 갚지 않았다. 적게는 수천 위안에서 많게는 수만 위안에 달했고, 많은 것은 14만 위안이었다. 나는 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순리대로 따랐다. 그러자 장사하면서 마음도 더는 힘들지 않았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사장은 물건을 아주 조금씩 떼어 갔다. 매번 몇백 위안어치에 불과했고, 가끔 외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그는 버스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도 전에 찾아오곤 했다. 이런 영세 고객은 동종업자들도

여동생 부부, 생사의 위기를 넘기다

[중국 투고]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우리 집에 있던 모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서적은 경찰이 불법 가택 수색하면서 압수해 갔다. 이후 나는 《전법륜(轉法輪)》한 권을 다시 구해 여동생 부부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부는 책을 잘 보관했다. 몇 년 뒤 그들이 책을 돌려줬을 때 책은 새것처럼 깨끗했다.

제부는 비계를 설치하는 일을 했다. 어느 해, 작업 중 실수로 2층에서 지하층까지 추락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모두 놀랐다. 당시 지하에서는 기초 공사가 진 중이어서 바닥에 큰 돌들이 가득했는데, 제부는 뜻밖에도 돌 사이의 나무판자 위로 떨어져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놀라워했다.

어느 날 여동생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소형 농업용 차량에 부딪혀 10여 미터나 튕겨 나갔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나는 여



동생의 손을 잡고 울면서 “파룬따파하오! 찼싼런하오!”를 계속 외었다. 점차 여동생이 의식을 되찾았고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여동생은 자신도 속으로 외었다고 했다. 처음에 의사는 여동생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지만, 검사 후에는 “심한 손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그만큼 빠르게 달라졌다. 여동생은 일주일 동안 입원한 뒤 회복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목숨을 대법 사부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믿었기에, 자신도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법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다!



위암 환자, 다시 찾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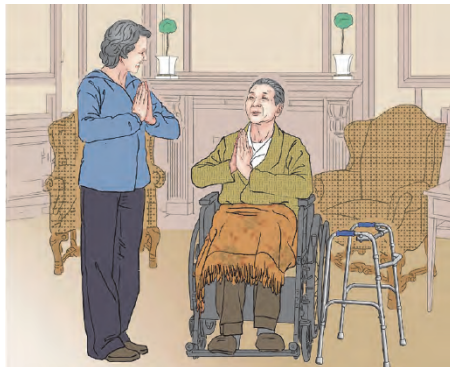
글/ 정산(淨山, 산둥)

2020년, 시도 때도 없이 위장에 신물이 올라오고 은근한 통증도 함께 나타났다. 의사는 위염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통이 점점 더 잦아졌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전부터 통증이 시작됐으며 몸도 점점 야위어 갔다.

5년 후인 2025년 4월 30일,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구토했고 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아들이 나를 시립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는 말기 위암이었다. 의사는 성(省)급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했다.

성급 병원의 정밀검사 결과도 말기 위암으로 확진됐다. 의사는 세 가지 치료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수술을 먼저 한 뒤 항암치료를 받는 것, 둘째, 항암치료를 먼저 받은 뒤 수술하는 것, 셋째, 방사선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느 치료법을 선택하든 몸이 크게 상할 거로 생각했다. 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고 보건의에 관한 상식도 어느 정도 배웠으며,



‘맨발의 의사(赤脚医生)’ 경험도 있어 이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거부했다.

노(老) 중의사의 말에 깨달음을 얻다

친척이 많은 유명 인사들을 진료한 적이 있는 유명한 노(老) 중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성급 병원을 나온 뒤 곧바로 그 노 중의사를 찾아갔다. 노 중의사는 검사 영상을 보고 병세를 파악한 뒤, 단번에 4천 위안여치의 약을 처방해 주었다.

나는 노 중의사에게 물었다.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만약 낫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양의 학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중의학 치료마저 효과가 없다면 이제 불문(佛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 ‘아내도 바로 불가(佛家)의 파룬궁을



나의 사업 철학: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글/ 이센(曦賢, 중국)



나는 장사를 했는데,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다. 아내는 내가 ‘전투기’ 같다고 했다. 다른 가게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나한테 없으면, 공장에 송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물건이 도착한 뒤 팔리지 않아도 조바심이 났다. 거래처가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두려웠다. 어떤 거래처는 가게가 망했는데, 돈을 받으러 찾아가면 오히려 화를 냈다. 소송을 하자니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서, 화가 나도 속으로 삭이며 끄꿍 앓았다.

그때 나는 장사하는 도리의 개념이 없었다. 장사가 잘되면 기뻐하면서 내가 톡톡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도 척척 알아맞힐 수 있어 돈 버는 게 쉽다고 여겼다. 반대로 장사가 잘 안되면 고민하고 괴로워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나는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不失不得)’는 이치를 깨달았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공평

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이 바로 ‘상도(商道)’라고 확신했다! 그때부터 가짜 상품의 공급원을 완전히 끊었다. 대법은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주었고,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릴 수 있게 했으며,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마음도 더는 힘들지 않았다.

가짜 상품 공급을 끊다

내가 대리 판매하는 정품의 가짜 상품을 어떤 사장이 몰래 도매로 유통해 내 상품 판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신고해서 그가 손해를 보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법을 수련하므로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 자리에서 내가 장사해 온 경험을 이야기했다.

“예전에 나는 누구보다도 가짜 상품을 많이 팔았어. 평판도 좋지 않았고, 늘 조마조마하며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했지. 대법을 수련한 후에야 깨달았어. 하늘의 도는 바른 사람에게 보답하고, 장사를 오래 하려면 바른길을 걸어야 해. 이건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는 크게 감동하며 말했다. “형님, 더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형님 물건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말했다. “NBA 선수로서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는 제 선수 경력을 잃었고 수천만 달러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BA 선수가 되기 전에,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저는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저는 마땅히 나서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곳에 모일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침묵해선 안 된다

연설에서 칸터는 미국과 세계 각지에는 아직도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운동선수와 배우, 예술가, 사회운동가들이 함께하도록 이끌어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후, 칸터는 소셜미디어에 현장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그



▲ 2026년 7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칸터. (명혜망)

가 다양한 연령대의 파룬궁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기사물에 이렇게 적었다.

27년!

27년간의 박해.

27년간의 고문.

27년간 이어진 가정 파탄.

중공이 파룬궁을 겨냥한 잔혹한 탄압을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단지 ‘진·선·인’의 가치를 실천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용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福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파룬궁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몸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들었지? 집에 가면 네 엄마에게 파룬궁을 배워야겠다.” 아들은 바로 찬성했다. 아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파룬궁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박해가 시작된 뒤에는 두려워서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수련하는 것을 매우 지지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사부님이 몸을 정화해 주시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아내와 함께 대법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매일 한 강의씩 시청했다. 두 번째 강의를 다 본 그날 저녁에는 사부님의 공법 지도 영상을 보면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따라 배웠다.

첫 번째 공법을 연마할 때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고, 온몸이 매우 편안하고 황홀했다. 다섯 번째 공법은 곧바로 결가부좌를 할 수 있었고, 30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아내는 내가 인연이 깊다고 말했다. 나 역시 인생의 황혼기에 대법을 수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사부님의 설법 영상 제3강을 계속 시청했다. 영상을 보던 중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희고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커다란 손이 내 위 부위를 위아래로 어루만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위가 한결 편안해졌다.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감격하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직접 당신의 위를 정화해 주신 거예요! 사부님은 정말 자비로우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대법과 사부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중의사에게 다녀온 뒤 나는 약을 사흘밖에 먹지 못했다. 약을 먹기만 하면 토했기 때문이다. 셋째 날에는 먹은 약을 전부 토해냈다. 하지만 밥은 먹을 수 있게 됐고, 점차 몸에 힘이 생기면서 체중도 늘었다. 나는 구운 빵을 좋아하는데 (위가 아픈 약 5년 동안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 두 달 동안 계속 구운 빵을 먹었는데도 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마음속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고통 속에서 병업을 소멸하고 생사의 고비를 넘다

8월 말이 되자 위에서 다시 신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통증도 재발했다.



▲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쯔(李洪志) 대사는 박람회 최고상인 ‘변연과학진보상’과 대회 ‘특별 금상’을 수상했으며, ‘인기 기공사’ 칭호도 받았다.

이번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다. 연공을 할 수 없었고, 사부님의 설법 녹음만 들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미 대법을 얻었기에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울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아버지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아니면 대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나는 말했다. “병원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미 대법을 얻었으니 계속 법을 배우고 연공할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 연공하겠어!”

네 닷새 정도 지나자 구토하기 시작했고, 위가 다시 쥐어짜듯 아팠고 피까지 토했다. 세 차례나 입에서 피가 뱉

어져 나왔는데, 토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한 움큼씩 쏟아져 나와 매우 무서웠다. 사흘 연속 피를 토할 때마다 위를 칼로 베는 듯 아팠다. 넷째 날부터는 피를 토하지 않았지만, 가래처럼 생긴 딱딱한 덩어리를 토하기 시작했다. 질러 부숴 보니 안에는 온통 찌른 살점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사흘 동안 계속 토하고 나자 온몸이 가벼워졌고, 위도 더 아프지 않았다! 그 때부터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게 됐고, 체중도 5kg 이상 늘었다.

우리 마을에는 위암에 걸린 사람이 7, 8명 있었는데,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많은 돈을 썼지만 낫지 못했고, 결국에는 모두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뒤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다. 이웃 들과 친척, 친구들은 내 경험을 통해 대법의 신기함과 초상적인 면을 직접 목격하고 자발적으로 대법의 진상 알리는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는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없어 반들반들했는데, 이제 일흔 살인 내 머리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머리카락이 뽁뽁하게 자라나 훨씬 젊어 보이게 됐다. 목숨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福

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라고 물었죠.”

“그 소녀는 제게 파룬궁에 대해 알려주었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와 파룬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칸터는 그날 이후 중공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일을 줄곧 마음에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경험을 더 자세히 알고자 더 많은 파룬궁수련자들과 박해를 받은 수련자들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집회에 처음 참석했다고 칸터는 말했다. “바로 그 어린 소녀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도덕을 지키는 것이 NBA보다 더 중요하다

칸터는 튀르키예계 전직 프로농구 선수로, 1992년 5월 20일 스위스에서 태어나 튀르키예에서 성장했으며 2009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키는 208cm로,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뉴욕 닉스, 보스턴 셀틱스 등 미국의 5개 NBA 팀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2021년 10월, 칸터가 중공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자, 당시 그가 소속돼 있던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는 중국에서 중계가 중단됐다.

2021년 말, 에네스 칸터(Enes Kanter)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공식적으로 이름을 에네스 칸터 프리덤(Enes Kanter Freedom)으로 바꾸었으며, 이후에도 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여러 차례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2022년 2월, 칸터는 휴스턴 로키츠로 트레이드된 뒤 계약이 해지됐으며, 이후 NBA 구단과 더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칸터는 파룬궁 박해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공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와 수백만 달러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돈이나 사업적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계약이나 광고 계약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농구를 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



어린 소녀의 호소, NBA 스타의 마음을 울리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 전 NBA 스타 에네스 칸터. (영문 에포크타임스)

미국의 전 NBA 스타 에네스 칸터 프리덤(Enes Kanter Freedom)은 한 어린 소녀의 도움 요청을 계기로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백만 달러의 사업적 이익이나 NBA 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혜기자 리징페이(李靜菲)
미국 워싱턴 DC 보도

2026년 7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 앞에서 칸터는 처음으로 파룬궁 박해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현장에 모인 2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저는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파룬궁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다.

어린 소녀의 도움 요청

칸터는 약 3년 전, 1m도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제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



그녀 머리 위의 검은 기운이 사라지다

글/ 후이쥘(蕙瑬)

나는 교사다. 30년 전, 인생의 전성기에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장병, 신장병, 관절염, 위장병, 현기증 등으로 온종일 약을 달고 살았다.

1996년, 수업 중 갑자기 심장 통증으로 숨쉬기도 힘들어졌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교실을 둘러보니 맨 뒷줄에 앉은 학생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뭔가 좋지않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교단 위에 쓰러졌다. 당시 겨우

마흔을 조금 넘긴 나이였다.

그날 저녁, 언니에게 전화해 이 일을 이야기했다. 언니는 건강을 걱정하며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다. 파룬궁이 ‘수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단체 법 공부에 갔다. 《전법륜(轉法輪)》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마음이 무척 벅찼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바라던 대로 ‘전법륜’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법 수련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병업을 소멸한 경험

며칠 후, 한 수련생이 리홍쑤(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테이프를 가

저다주었다. 영상을 보자마자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뺏속에서부터 냉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이것은 업력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새벽 4시쯤, 갑자기 심한 설사를 시작했다. 오후 4시까지 모두 아홉 차례나 설사했다. 평소라면 세 번 정도 설사한 후 손가락 끝이 쪼그라들고 심장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하지도 않았고 안색도 나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 몸을 정화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마음속으로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 마셨다. 셋째 날,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한참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나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다니다니. 길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 공법은 정말인가 봐. 믿지 않을 수가 없네.”

그때 병역을 소멸하는 과정을 겪은 이후로, 몸은 줄곧 매우 건강했다.

심장에서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다

2001년, 나는 파룬궁 수련을 계속했

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교도소 의사가 내 몸을 검사하면서 청진기로 한참 동안 진찰했다.

그는 말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정말 좋네요. 잡음이 전혀 없고 심박도 아주 고르고 규칙적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나요?” 나는 말했다. “저는 심장병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했고,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교도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교도관은 나를 다시 불렀고 의사는 내 심장을 한 번 더 청진했다. 이번에는 “예전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심장병을 앓은 지 몇 년이



▲ 1998년 10월 1일(중공의 파룬궁 박해 이전), 지난(濟南)의 파룬따파 수련자 약 1만 명이 산둥성 체육센터 광장에서 단체로 연공하는 모습.



파룬궁,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리홍쯔(李洪志) 대사가 1992년 5월 13일 전한 불가(佛家)의 고차원 수련 대법이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적인 지침으로 삼아 우주의 연화 원리에 따라 수련한다.

파룬따파의 수련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며, 진정한 수련은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심성(心性)’을 수련한다고 한다.

파룬따파에는 또한 느슨하게·천천히·둥글게 하는 다섯 가지 공법이 포

함되어 있다. 심성을 닦는 동시에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함으로써 수련자들의 도덕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한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파룬따파는 국가와 민족, 문화의 경계를 넘어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수련인 수는 1억 명을 넘는다. 리홍쯔 선생이 제자들의 수련을 지도하기 위해 저술한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은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출판·발행되고 있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각급 정부와 의회, 정계 인사들로부터 1만 3천여 건의 표창과 지지 결의안, 지지 서한을 받았다.



▲ 야외에서 연공하고 있는 천선선 씨.

시작했다. 그날 밤, 책 속의 법리는 한 줄기 한 줄기 맑은 샘물처럼 그녀의 마음속 고뇌를 씻어내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이 왜 고통을 겪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긴장과 억눌림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활가분함과 평온함이었다.

“수련하겠다! 제대로 수련하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없이 확고한 다짐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 체질’에서 벗어나다

선선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라던 대로 파룬궁 9일 영상 학습반에 참가해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수련을 시작한 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몸에서 나타났다. 과거 중의사로부터 ‘태산 같은 체격에 할머니 같은 체질’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연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제비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 계단을 오르던 그녀가 문득 놀라서 말했다. “와! 내가 이렇게 가볍게 계단을 올라가다니? 몸이 똥똥 뜨는 것처럼 온몸에 무게가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힘겹게 느껴졌던 계단이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더없이 가볍고 수월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

선선은 ‘전법륜’을 꾸준히 배우고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면서 “마음의 그릇이 계속 넓어졌고, 내 안에 있던 많은 불순물과 좋지 않은 성격도 대법에 의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처로 얼룩졌던 부부 관계에도 조용히 변화가 찾아왔다. 선선의 변화를 지켜본 남편은 대법에 깊은 경의를 품게 되었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인생의 거센 풍파를 지나온 그녀는 관용과 선의로 삶을 가로막던 빙산을 녹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맞이했다. 

나 됐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나중에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됐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생각만 해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장 씨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기공을 연습하던 선생님들 가운데 천목(天目)이 열린 분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장 선생님은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한쪽 신장은 이미 절제했고, 남은 한쪽도 오랫동안 염증에 시달렸다. 매년 입추면 어김없이 신장병이 재발했다. 이 밖에도 고혈압이었으며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 온 몇몇 사람들은 자주 모여 기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장 선생님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오늘 점심때 퇴근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당신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장 선생님 댁에 도착하자, 천목이 열린 선생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고 전해주었다. “○○ 선생님(나를 가리킴)은 분명 어떤 고급 공법을 수련할 거예요. 원래 그녀 머리 위에 검은 기운이 한 덩어리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노란 기운만 아주 조금 남았어요.”

장 선생님은 곧바로 내게 물었다. “무슨 공법을 수련하고 있어요? 책도 있나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장 선생님은 즉시 남편에게 ‘전법륜’ 한 권을 사 오게 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나에게 연공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약 보름 후, 장 선생님도 소염(消業)하며 40도까지 고열이 났다.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는데, 일주일 후 장 선생님은 다시 출근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활력이 넘쳤다! 이 일은 당시 학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여덟아홉 명이 잇따라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우리는 연공장도 만들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 교장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제가 교장 노릇 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보세요. 올해 모범 교직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바로는 ‘전법륜’의 모든 구절이 조금도 틀림없는 진실이며, 파룬따파는 난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대법이다. 

인생의 풍파를 지나 행복과 평온을 맞이하다

명혜기자 선릉(沈容) 대만 취재·보도

대만의 중학교 교사 천원쑤(陳惲恂)은 배우자의 배신과 결혼생활의 위기,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파룬파(法輪大法, 파룬궁)는 그녀가 다시 삶을 마주할 힘을 되찾게 했고, 인생의 절반을 풍파 속에서 보낸 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했다.

사랑의 상처, 절망 속에서 깨어나다

원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네 남매 중 딸이었던 그녀는 문학과 철학을 좋아했으며, 그 속에서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대학 때 한 남성과 교제했지만, 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그로 인한 깊은 상처에 그녀는 홀로 외딴 시골 마을로 떠나 세상과 단절했고,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다. “죽는다고 해방되는



▲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63세 천원쑤 씨.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은 마치 벼락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그녀를 절망의 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결혼생활과 직장의 무거운 압박

원쑤는 대학을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자신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이, 결혼 후 오히려 가장 거센 풍파를 가져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남편은 술을 즐겼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져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았다.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생겼다.

가정은 갈수록 무너졌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계속 커졌다. 학생들의 반항과 말대꾸에 그녀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매일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한동안 침대에 쓰러져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 겨우 조금이라도 기운을 되찾고 일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죠.”

결혼생활, 직장, 건강에 모두 적신호가 켜지면서 삼중고에 시달린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원쑤는 힘겨웠던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저는 자주 학교 복도에 서서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인생도 컴퓨터처럼 로그아웃 버튼 하나만 눌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진선인’,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녀는 교회에도 가보고 도장도 찾아가 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고뇌는 여전히 그녀를 쫓아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게 했다. 그러던 중 마흔 살이 되던 해,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원쑤의 인생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2003년, TV에서 파룬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연공한 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았죠.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이었습니다.”라고 원쑤는 말했다.

‘진선인’은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이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시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선인을 수련할 수 있다면, 진선인의 순수함 속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원쑤는 서둘러 서점에 가서 《전법륜(轉法輪)》을 산 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읽기



▲ 《전법륜》을 읽고 있는 천원쑤 씨.